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미국, 오바마케어, 식품, 트럼프, FDA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미국, 오바마케어, 식품, 트럼프, FDA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美 FDA, 오바마케어(ACA)법 ‘식품 정보 공개’ 규정 실행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美 FDA, 오바마케어(ACA)법 ‘식품 정보 공개’ 규정 실행 발표

오바마 케어(ACA) 폐지를 주장해오던 트럼프 정부로 인해 혼란을 겪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오바마케어 관련 규정이 2017년 5월 5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은 식품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에 따라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는 식당은 메뉴의 식품 품목을 공개해야 하며, 판매자 정보 또한 공개해야 한다. FDA는 메뉴 외에도 자동 판매기 및 매장 내 홍보 자료에도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칼로리 정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보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식품에 대해 판매자 정보 또한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2월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의 오바마케어 폐기 방향에 따라 FDA는 2017년 5월 5일부터 시행일을 발표하게 되었다. FDA 발표에 따르면 규정을 어길 시, 벌금 및 징역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며,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66곳의 체인 식당 가운데 5곳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aster Data Management(MDM) 및 제품 정보 관리(PMI) 솔루션 업체인 EnterWorks社의 CEO Rick Chavie은 “식품 체인점 및 편의점, 식료품점과 같이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중앙 집중식 제품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변화하는 산업 규정에 적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브랜드화된 포장 식품과는 달리, 지역별 체인 식당에서 즉석으로 조리되는 식품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기에 이를 통합한 중앙 식품 콘텐츠 네트워크를 통해 FDA 규정을 준수하면서 식당 메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행 건강보험법인 일명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하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협상은 타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을 낙관한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는 前 정부인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트럼프 정부의 전 정부 ‘흔적 지우기’ 겸 현 정부의 세력 다지기를 위한 ‘오바마케어 흔들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다만 현 상황에 대해서는 EnterWorks社의 CEO가 언급한 대로 중앙 식품 콘텐츠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FDA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과 영양 성분을 검증하기 위해 식품 공급 체인 파트너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